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희망 싹 틔우다

### 호남권 최초 '스마트팜 농장주' 모여 협동조합 설립 장애인 다섯팀 입주...가족 돌봄·경제적 자립 지원

호남권 첫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가치만드소'의 제1호 '스마트팜 농장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돌봄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누릴 수 있는 '평생 직장'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가치만드소'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 발달장애인 가족 다섯팀이 입주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광산구 하남동(고봉로 126-15)에 조성된 '가치만드소'는 호남권 최초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이다. 지상 2층, 연면적 585㎡ 규모로 생산시설, 보육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가장 핵심인 스마트팜 식물재배실은 1~2층을 합쳐 330㎡ 규모로, 재배판을 5단으로 설치해 실제 재배면적이 1650㎡(500평)에 이른다.

특히 발달장애인도 간단한 조작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치만드소' 운영 기관인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전부터 스마트팜 운영 교육과 기술 훈련을 받은 덕에 가족들은 빠르게 시설에 적응했다.

주 재배 품목은 샐러드에 쓰이는 프리아이스로,

모든 재배 과정은 발달장애인 자녀와 가족으로 이뤄진 다섯 입주팀이 맡고 있다. 이들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역할을 분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매달 1.5톤 안팎의 생산량을 기록 중이다.

센터는 가족이 능숙하게 스마트팜 시설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가족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생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립되면서는 창업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치만드소' 입주 기간은 2년으로, 졸업 이후에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이 가족들의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창업보육 과정과 실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거친 가족들은 지금도 스마트팜 재배를 하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전체 입주 가족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가치여울협동조합' 설립까지 완료했다.

'예비창업가' 단계에 진입한 가족들의 다음 과제는 안정적 수익 방안 마련이다.

현재 '가치만드소'에서 생산한 작물은 100%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국내 최대 샐러드 업체의 광주 지사에 납품되고 있다.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개소식에 참석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했지만, 충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샐러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센터는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등 실무지원과 함께 지원 정책 연계 등 성공적 창업을 위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광산구는 가치만드소 전반의 안

정적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존엄한 삶,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선 돌봄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치만드소를 통해 누구나 일 속에서 바라던 일상,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모델을 만들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마을복지건강계획수립 '동동(洞動) 백서' 발간·배포

광주 광산구는 "21개 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 활동 보고서인 '동동(洞動) 백서'를 발간·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1개 동에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장단, 복지시설 종사자 등 마을활동가들이 계획단을 꾸려 마을의 복지체계를 발굴하기 위한 마을자원조사, SWOT(장단점, 기회, 위협) 분석, 여론 수렴, 의제 모으기, 간담회, 대동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66개 복지체계가 선정돼 올해 각 마을의 복지건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체조교실, 경로당 어르신 건강·정서 프로그램, '365일 건강지킴이' 사랑의 약 달력 지원 등 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동동 백서'는 이러한 21개 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과정과 사례, 동별 우수 복지예제, 비전 및 전략, 계획단 활동 소감은 물론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총평을 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복지건강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풀뿌리 복지 구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각 마을의 복지·건강 의제가 계획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도가니 피해자 자립 위한 '카페홀더' 10주년

### 임은정 부장검사·민형배 국회의원 일일 명예지점장 봉사활동

소셜과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설립한 '카페홀더'가 개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07년 도가니 사건 1심 재판 과정에 공판 검사를 맡았던 임은정(49)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2013년 카페홀더 개점 당시 구정장이었던 민형배 국회의원은 일일 명예지점장을 자처하고 나섰다.<사진> 광주 광산구청 현관 1층에 자리한 '카페홀더'는

2013년 개점 후 올해 10주년을 맞았으며, 인화학교 출신의 청각 장애인 7명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카페홀더' 개점 10주년 행사가 열린 지난 6일에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카페홀더'를 찾아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했다.

김용복 대표는 "민 의원은 2013년 광산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카페홀더 개점에 큰 도움을 줬으며 10년째 잊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다"면



서 "임 검사와 관련해서 6개월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공판을 맡으면서 현장감까지 함께 했

던 당시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여성의 소리! 그들에게 듣는다

### 수완동, '3·8 여성의 날' 행사

광산구 수완동은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수완프라자(수완동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여성의 소리! 그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는 각자 다른 상황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여성의 진솔한 삶을 이야기하고, 일과 가정, 사랑,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순간에 무너진 가족의 어려움을 이겨낸 여성의 이야기부터 직장에서는 커리어우먼으로 사회에서는 봉사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활동가 여성 리더 이야기 등으로 엮여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윤희영 의원 발의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윤희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의 산립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

립을 실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련 용어의 정의 ▲구정장의 책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정장이 도시숲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본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숲 조성 및 육성 등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설계단계부터 관리청과 협의해야 하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해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



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윤희영 의원은 "일상 공간에 조성된 녹지를 관리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숲이 마련돼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한 심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